

목록의 집중기능을 향상시키는 ‘원형’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Concept of ‘Prototype’ for Enhancing the Collocation Function of Catalog

이 혜 원(Hyewon Lee)**

초 록

저작은 목록의 집중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지 개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의 개념을 재분석하고, 이미 공표된 FRBR 저작의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작의 집중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보다 한 차원 높은 ‘원형’ 개체를 선언하였고, 원형과 관련된 속성 및 관계를 FRBR 모형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ABSTRACT

Work is a bibliographic entity serving a key role for the collocation function of catalog. This study analyzed the concept of work, provided a new device to complement conventional FRBR work. The ‘prototype’ was suggested to enhance the collocation function of catalog, the highest level in FRBR. This study explained the definition, attributes of prototype, and relationships between prototype and work within FRBR model.

키워드: 원형,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저작 단위, 슈퍼저작, 슈퍼 레코드
Prototype, FRBR, Literary Unit, Super Work, Super Record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hwlee@swu.ac.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8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8월 19일

1. 서론

국제도서관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라고 함)에서는 1961년 파리 원칙에서부터 목록 작성의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목록 작성의 기준은 서지 단위(bibliographic unit) 그리고 저작 단위(literary unit)로 나누어져 있다. 서지 단위의 목록 작성은 정보를 검색하는데 탁월하며, 저작 단위 목록 작성은 정보를 집중하는데 탁월하다. 목록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수용하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목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 Functional Requirements of Bibliographic Records, 이하 FRBR이라고 함) 모형은 목록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차원의 '최소 수준' 목록규칙을 제시하였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서지 단위를 통해 특정 아이템을 확보하고, 저작 단위 목록을 통해 특정 저작과 관련된 표현형 및 구현형 등을 확보하게 된다. '특정 저작과 관련된'이라는 어구는 '특정 저작과 의미적으로 연결된'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FRBR 모형의 저작은 '의미 연결'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FRBR 저작과 표현형 구분의 모호성을 고려한다면 '의미 연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이라는 개념을 재조명하고, 이미 공표된 FRBR 저작의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작의 집중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보다 한 차원 높은 '원형(prototype)' 개체

를 선언하였고, 원형과 관련된 속성 및 관계를 FRBR 모형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2. 선행연구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진 저작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의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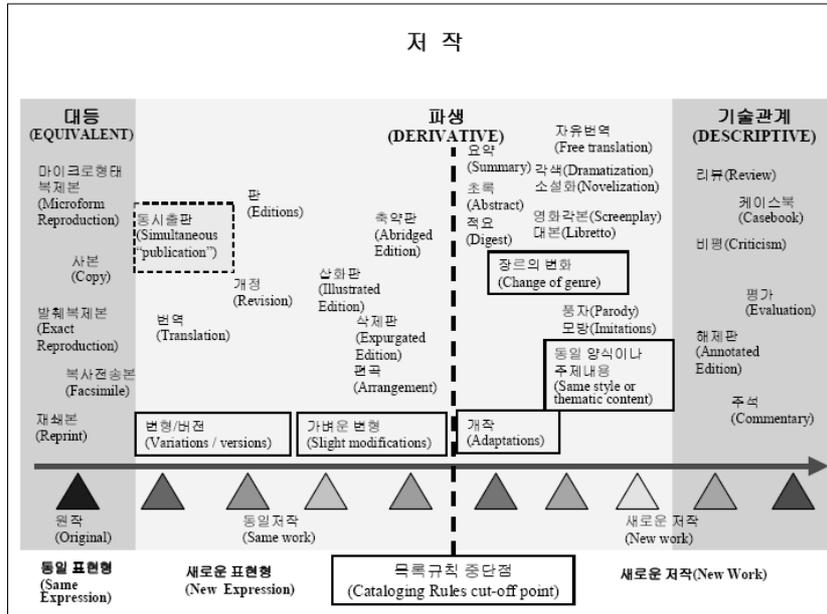
2.1 저작의 개념

저작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목록규칙의 대표적인 예는 FRBR 모형이다. FRBR의 저작은 제1집단에 속한 개체로 지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로 정의되었다. 저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개체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규정하기 어려우며,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저작 계통을 보여주고 있다. Tillett(2001)는 파생관계의 정도에 따라 저작의 경계를 구분하였다. 파생관계와 동등관계 사이에는 동일 저작에 대한 새로운 표현형을 나타내고, 파생관계와 기술관계 사이에는 새로운 저작과 그와 연결된 새로운 표현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 대한 분석은 저작과 표현형을 어떻게 구분하였는가보다는 위의 내용을 하나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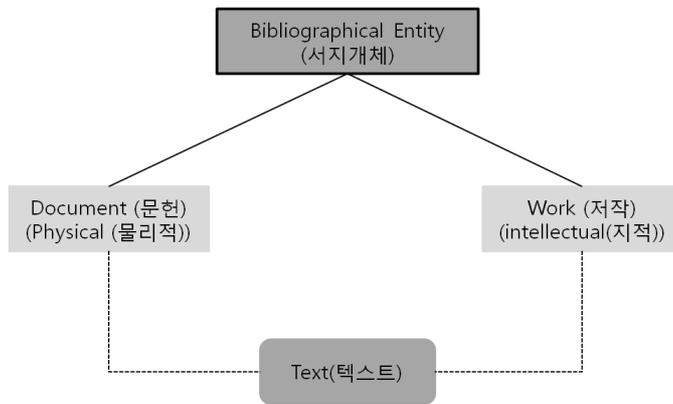
Smiraglia(2001)는 저작을 구조화된 관점에서 설명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



〈그림 1〉 저작 계통(family of works); 저작과 표현형의 경계

출처: 이성숙, 김태수(2005) 재인용: Tillet(2001)



〈그림 2〉 문헌, 저작 그리고 텍스트로 연결되는 서지 개체

출처: Smiraglia(2001)

과 같다. 서지 개체는 물리적인 속성을 구현한 문헌과 지적인 속성을 지닌 저작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텍스트는 지적, 물리적 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저작을 표현하는 단어와 기호의 집

합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을 고려할 때 문헌에 대한 해석은 진화되어야 한다. 문헌은 '단지 물리적인 객체이다'보다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단어와 기호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객체(signifying objects) 이다'라는 정의가 더 바람직하다. 즉 '문헌' 범주는 인쇄 매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환경과 밀접한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개체를 포함하여 이미지, 시각, 영상으로 표현되는 멀티미디어 객체도 고려되어야 한다.

2.2 FRBR 모형에서 나타난 저작 집중성 분석

이미화와 정연경의 연구(2008)에서는 FRBR의 저작 집중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인 Hickey & O'Neill(2005), Bennett, Lavoie, and O'Neill(2003), 김정현(2007)의 연구 결과와 함께 한성대 도서관 총 304,861건의 레코드를 분석하였다.¹⁾ 대상과 그 대상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저작 수를 분석한 결과는 거의 유사하였다. 저작당 단일 구현형의 비율이 Hickey & O'Neill 연구(2005)에서는 96%, Bennett, Lavoie, and O'Neill 연구(2003)에서는 78%, 김정현의 연구(2007)에서는 82.5%, 이미화와 정연경의 연구(2008)에서는 94%이었다. 또한 이미화와 정연경(2008)은 저작당 표현형의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저작당 표현형 수를 1~7개까지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표현형 수가 하나인 저작은 261,323개로 전체 저작의 99%를 차지하고, 2개 이상의 표현형을 갖는 저작은 2,019개로 나타났다. 즉 저작당 표현형 수는 평균 1개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현재 목록시스템에서 FRBR 적용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특정 서지개체 즉 하나의 저작에 대하여 하나의 표현형과 하나의

구현형의 관계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같은 여러 판이나 구현형을 가지는 문학(DDC 800)에서는 예외이었다. 이미화와 정연경의 연구(2008)에 따르면 저작당 구현형 1개만이 갖는 저작이 247,357개(94%)를 차지하고, 100개 이상의 구현형을 갖는 저작은 15개로 나타났다. 구현형이 많은 상위 1%의 저작은 4~5개 이상의 구현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분석 결과 『장길산/황석영』, 『삼국유사/일연』, 『아리랑/조정래』, 『토지/박경리』 등으로 상위 1~4위까지가 모두 문학작품이었다.

3. 저작 집중기능 분석

1904년 카터가 제시한 목록의 기능은 IFLA의 1961년 파리원칙, 1998년 FRBR 발표 및 2006년 국제목록원칙규범 등에서 제시된 목록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04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목록의 두 가지 기능은 첫째, 집서 중에서 특정 자료(서지개체: bibliographic entity)를 식별하고 검색하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 또는 특정 저작의 여러 다른 판의 집중기능이다(김태수 2008).

2006년에 발표된 목록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능에 '목록 항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목록 항해'는 저작이나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지정보의 논리적 배열과 명확한 이동 방법을

1) 이미화와 정연경의 연구(2008)에서는 저작 및 표현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단행본, 전자도서, 비디오 자료를 처리한 결과 전체 304,861개의 서지레코드가 263,342개의 저작으로 클러스터링 되었다.

제시하는 일이다. '목록을 향해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목록체계의 변화 및 정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목록의 기능으로 추가되었다. 먼저, FRBR이 제안되면서 서지개체를 제1집단의 4가지 개체로 구분하고 그 개체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목록체계의 변화로 인해 '목록 향해'가 추가되었다. 두 번째는 웹이라는 정보공간이 보편화되면서 '목록 향해'가 추가되었다. 개별 서지개체와 관련된 서지개체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기술이 고도화됨으로써 '목록 향해'가 웹 공간에서 수월하게 표현될 수 있었으며 또한 이용자 본인들의 요구가 잘 반영된 웹 인터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2006년 IFLA 국제목록원칙규범에서 제안한 목록의 기능은 서지자료의 속성이나 관계를 이용하여 소장된 서지자료를 검색, 서지자료나 서지기관을 식별,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서지자료를 선정, 기술대상인 개별자료에 대한 접근을 확보, 목록을 향해하는 것이다.

16세기 이래 목록의 주된 기능으로서, 특정 자료의 검색기능이 집중기능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것은 특정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에 기재된 서지정보가 검색의 단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기능은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이나 번역서의 집중기능으로서 서구의 목록에서 특히 중요시 된 기능이다(김태수 2003). 전체적으로 목록은 정보를 찾는 이용자의 입장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검색기능을 중심으로 저자나 저작과 같은 하나의 개념을 정리하는 집중기능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즉 목록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용자 본인이 찾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 - 속성 및 관계 -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집중기능은 현재의 정보 환경에서 '목록 향해'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지개체는 목록의 기능을 미리 고려한 국가 및 해당 기관의 목록규칙에 의해 정리된다. 실제적으로, 목록규칙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터 가독형 목록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서지개체는 목록시스템 필드에 맞추어서 속성과 관계로 기술된다. MARC 포맷이나 다양한 메타데이터 셋으로 구조화된 목록시스템은 정보 검색기능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관점과 요구를 잘 반영하는 식별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록의 기능들은 목록의 집중기능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목록의 집중기능을 위해 목록시스템에서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지개체의 일반적인 속성과 관계 중에서 해당 개체와 다른 개체들을 구별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둘째, 구별되는 요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유사 개체들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셋째, 유사한 개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목록의 집중기능은 위의 세 가지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목록시스템 상에서 표현된다.

서지개체 속성 및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IFLA에서는 1998년 FRBR를 선언하였다. 그 후 2010년 최종 발표된 영미목록규칙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자원기술과 접근)에서도 FRBR의 기본 개념을 따르고 있다.

FRBR는 전거제어라는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전거제어는 서지 개체를 식별하고 서지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기법으로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개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김태수 2008). 전거제어는 특정한 개체가 지닌 여러 이형 중 접근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련된 인물이나 단체, 저작을 연결하는 망을 구축하게 된다. 전거는 목록의 집중기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특정 서지개체와 관련된 다른 서지개체를 연결해 주는 동시에 관계성을 제공한다. FRBR에 반영된 전거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제1집단에서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등 저작을 중심으로 관련된 개체들을 모으고 통제하는 것이고, 제2집단에서는 인물 및 단체 등을 통제하였다. 제3집단은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이라는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FRBR의 제1집단만을 고려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목록규칙에서 저작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FRBR 선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특히 FRBR 이후에서는 FRBR 제1집단에서의 저작 및 이와 관련된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을 확인하였다.

3.1 저자 집중기능인 슈퍼 레코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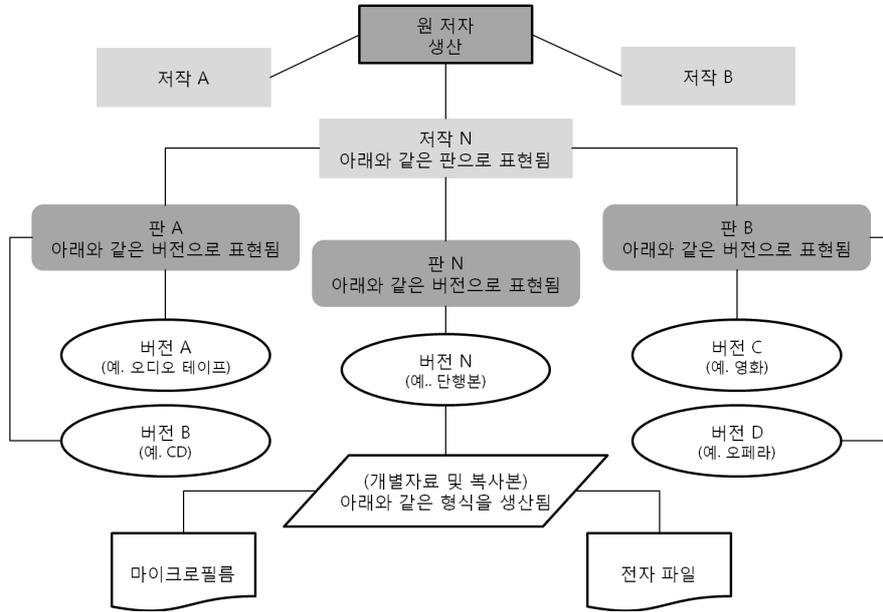
FRBR 제안 이전에는 목록의 기능을 실현하는 주 수단으로 표목을 활용하였다. 표목은 저록의 올림말로써 배열의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표목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을 한곳으로 모아두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모아두는 기능은 목록의 집중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특히 서양목록에서는 저자명을 활용한 기본표목을 중

요시 하였다. 기계가독형 목록에서도 기본표목을 중심으로 한 집중기능은 1XX 필드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Fattahi(1996)는 특정 저자를 중심으로 한 저작 집중기능으로 슈퍼레코드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는 카드목록 환경에서 개별 서지개체의 식별의 키로 저자명을 활용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Fattahi(1996)는 파리원칙에서 논의되던 기술을 바라보는 두 관점인 Verona의 서지 단위와 Lubetzky의 저작 단위를 개체(item)와 저작(work)으로 다시 설명하였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과 관련된 속성은 지적 산출물과 관련된 주제, 언어, 장르 등으로 표현될 수 있고, 개체의 속성은 출판날짜, 출판 장소 및 출판사 이름, 크기, 표준번호, 물리적 형식 등이다. 이용자는 저작과 개체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술의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림 3>과 같은 슈퍼 레코드(super record)는 기구축된 표목 안에서의 저자명을 중심으로 관련 저작을 간단하게 배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Fattahi 1996).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슈퍼 레코드는 통일표제를 반복하는 것으로 특정 저작의 다양한 판을 집중하였다. 슈퍼 레코드는 ① 특정 저작의 다양한 판과 구현형을 제공하고, ② 그러한 관계가 의미 있게 배열되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Fattahi 1996).

기계가독형 목록은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목록시스템이다. 기계가독형 목록은 카드목록의 검색 및 집중기능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기계적 처리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 효율성은 향



〈그림 3〉 슈퍼 레코드(Fattahi(1996)의 그림 5를 수정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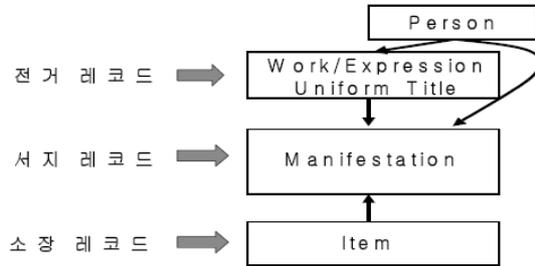
상되었으나 집중기능을 기계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정보통신기술과 목록 환경 발전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은 컴퓨터 자체 능력 향상, 다양한 소프트웨어 출현,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네트워크 기술 발전 등으로 정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목록의 세계에서 MARC 필드 개선 및 전거제어, 주제명표목 등의 개발·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에 못지않게 이용자의 요구도 진화되었다. 이용자는 특정한 서지개체의 소장여부 및 위치과약을 넘어서 특정 개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 했으며, 요구 자체도 좀 더 상세하고 다양해졌다.

3.2 FRBR 저작에 대한 재해석

FRBR 제1집단의 개체인 저작, 표현형, 구현

형, 개별자료는 특정 저작을 기준으로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순으로 연결되는 논리적인 관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목록의 집중기능을 실현하였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성숙과 김태수(2005), 조재인(2005) 등은 저작/표현형 계층 경계의 모호성을 설명하였다. 이성숙과 김태수의 연구(2005)에서는 기존의 저작 및 표현형에 대한 개념을 재설정하여 m-FRBR 모형을 제안하였다. m-FRBR 모형에서는, 저작은 지적, 예술적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로서, 원작에서 파생된 모든 관련 저작을 아우르기 위한 '슈퍼 저작'으로 간주되었고, 표현형은 저작과 표현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조재인(2005)은 Tillett의 연구(2002)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정리하여 FRBR 응용을 위한 시나리오를 소개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FRBR 응용을 위한 시나리오: FRBR 개체와 레코드 구조
출처: 조재인(2005)

〈그림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Tillett(2000)는 저작/표현형은 통일표제 전거레코드, 개별 자료는 소장레코드, 사람에 관련된 개체는 이름 전거레코드에 해당된다. 현행 레코드 체계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명의 전거제어를 위하여 활용된 통일표제 전거레코드가 FRBR의 저작/표현형 표제를 위한 전거레코드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것이다(조재인 2005).

3.3 저작 집중기능에 대한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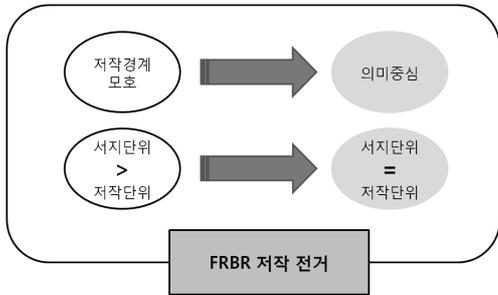
목록계에서는 FRBR 발표 이전이나 이후 끊임없이 목록의 집중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는 카드목록의 기본표목의 개념을 기계가독형 목록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저작을 중심으로 서지개체들을 모으려는 시도는 전거 레코드 활용으로 이어졌다. 실제 목록환경을 중심으로 볼 때 저작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서지개체들을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러한 고민은 한 저작과 관련된 개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FRBR의 논리적인 관계 연결은 서지개체를 세분화하여 서지개체에 담고 있는 의미나 개념을 이용자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특정 매체에 담아 보내주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즉 FRBR 모형의 의도는 서지개체의 의미나 개념을 잘 전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의미와 개념도 참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FRBR 모형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실제 목록시스템에서 잘 반영되지 않았다. 첫째, 저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개체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FRBR에서 제시한 저작의 계통을 살펴보면 요약을 비롯하여, 장르가 변경된 경우, 원작과 동일한 유형 또는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풍자나 모방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모두 새로운 저작으로 간주하였다. 서지개체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 전달이라는 FRBR의 의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둘째, 구현형이라는 구체적인 산물이 확보되었을 때 FRBR 모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서지개체에 대한 저록작성은 서지 단위와 저작 단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논리적, 물리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반면, 구현형을 대상으로 한 저록작성은 저작보다는 문헌 같은 출판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저작을 집중시

키는 방안은 <그림 5>와 같다. 첫째, 저작 해석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저작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의 독창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저작의 창의성을 확인하는 경계를 '의미'에 집중하고자 한다. 둘째, 서지개체에 대한 저록 작성시 서지단위와 저작 단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서지 단위의 기술은 구현형 속성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반면 저작 단위의 기술 부분은 좀 더 확장되어 한다. 저작 단위의 기술은 저작의 속성 및 저작 간의 관계 표현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FRBR 모형을 유지하면서 저작의 집중기능을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은 저작에 대한 전거 제어로 표현될 것이며, 저작의 상위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림 5> 저작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방안

4. 저작을 집중시키는 원형 개체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FRBR의 저작들을 연결하는 즉 저작보다 한 차원 높은 계층을 설계하고자 한다. 저작 전거 제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원형(prototype, 原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형'의 사전적인 의미는 ① 본디의 꼴, ②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기 이전의 단순한 모습, ③ 기본형(基本形) 등이다. 본 연구에서도 사전적인 원형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4.1 국립예술자료원 자료 분석

본 장에서는 '원형'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FRBR 모형을 사용하는 목록시스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FRBR 저작 단위로 관련 서지개체가 모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의(비)도서, 영상, 음향 및 실물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국립예술자료원의 목록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예술기록과 자료를 기술하는 것으로 FRBR 모형을 활용하여, 관련 서지 개체들을 집중시켰다.

2010년부터 국립예술자료원에서는 이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서지 개체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현 목록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없는 특정 개념과 그와 관련된 서지 개체의 집중을 정보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작성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의 이어달리기²⁾ 프로젝트는 매일 무대에 오를 한 편의 공연을 선정해 소개하고, 그

2) 국립예술자료원(www.knaa.or.kr) 공지사항에 게시됨.

와 맞닿아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자원의 대상은 연극, 오페라, 발레, 무용 영상, 음반, 대본, 프로그램 등을 삼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DVD, CD,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기도 하고 초청특강, 해설영상감상회, 특별 전시회 개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2010년 8월부터 시작된 이어달리기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은 국립예술자료원 이어달리기에 게시된 13개의 항목을 분석한 것으로 각 항목별 중심을 이루는 개념을 설명하였다. 인물 및 연극제 같은 이벤트성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쓰인 중심 개념은 작품이었다. 이어달리기에 게시된 콘텐츠는 이용자들에게 정보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정보검색 및 집종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13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집종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다.

<표 1> 중에서 8번째 '동 주앙(Dom Juan)'

콘텐츠 분석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관련 서지 개체를 모으는 기능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6>은 '동 주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연결한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체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림 7>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DON GIOVANNI> 작품들, <그림 8>은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관련 작품들을, <그림 9>는 '동 주앙' 단행본을 집중으로 하였으며, <그림 10>은 몰리에르 작품들을 단행본, 공연 영상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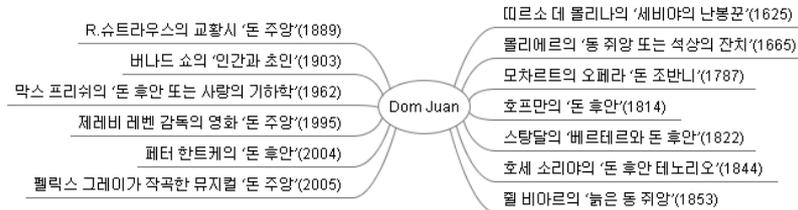
<그림 7>에서 나타난 작품들은 모두 영상자료이며, <그림 8>에서 나온 작품들은 첫 번째 작품만이 영상자료이고, 나머지는 녹음자료이다.

<그림 11>은 국립예술자료원에 소장된 '동 주앙'의 작품들을 연결하여 표현한 것으로, 국립예술자료원의 목록시스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서지 개체간의 의미적인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나쁜 남자, 난봉꾼, 호색한을 의미하는 '동 주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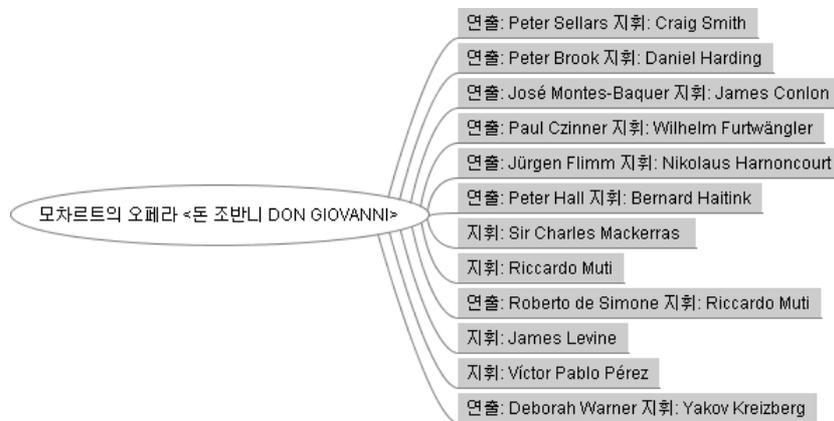
<표 1> 국립예술자료원 이어달리기 분석

번호	주제	중심	집중	검색	정보제공
1	열정과 자유의 발레 <돈키호테>	작품	◎	○	○
2	죽음을 초월한 사랑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작품	◎	○	○
3	<메피스토펠레> & <파우스트>	작품	◎	○	○
4	20세기 최고의 화제작 <롤루>	작품	◎	○	○
5	클래식발레의 진수 <백조의 호수>	작품	◎	○	○
6	국립현대무용단 창단공연 <BLACK BOX>	인물(홍승엽)	◎	○	○
7	로맨틱발레의 걸작 국립발레단 <지젤>	작품	◎	○	○
8	유혹의 대명사-명동예술극장 <동 주앙>	작품	◎	○	○
9	서커스의 화려한 귀환 - 태양의서커스 <바레카이>	작품	◎	○	○
10	극단 수레무대 <곰> & <청혼>	극단	◎	○	○
11	故차범석 5주기 특별공연 <산불>	인물(고 차범석)	◎	○	○
12	청소년을 위한 연극 <쉬반의 신발>	작품	○	○	◎
13	연극이 내게로 온다 '거창국제연극제'	연극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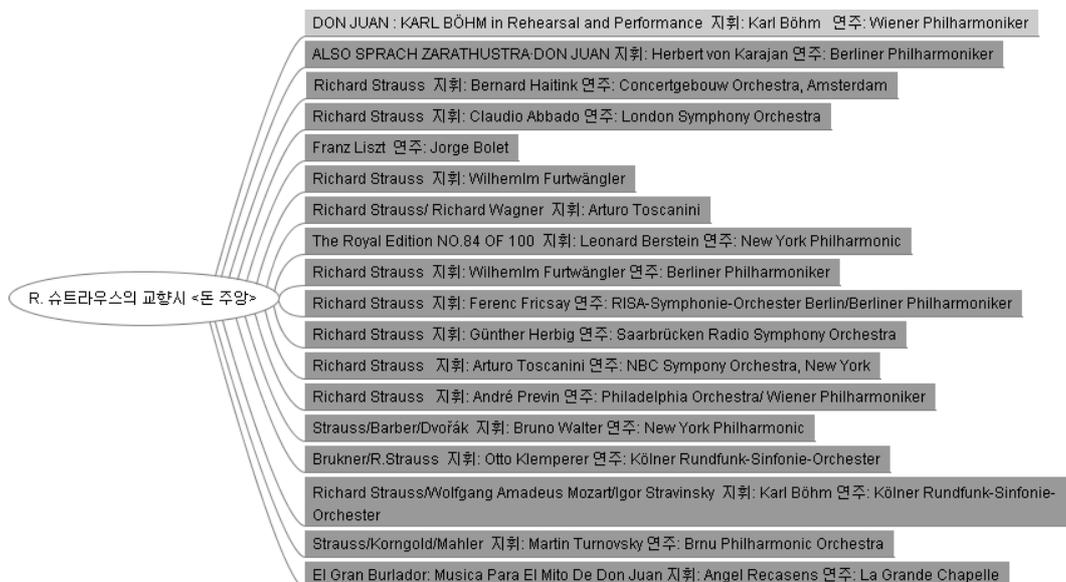
*기능의 강조정도 표시(◎: 매우 좋음, ○: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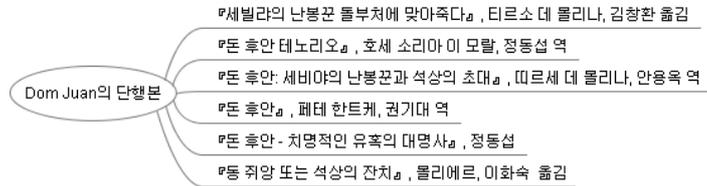
<그림 6> '동 주앙'의 대표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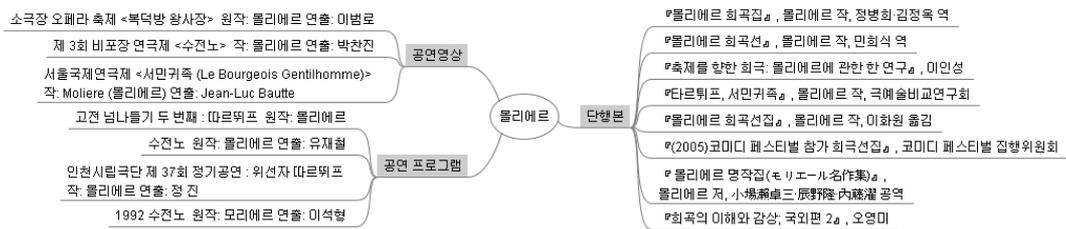
<그림 7>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DON GIOVANNI> 관련된 작품들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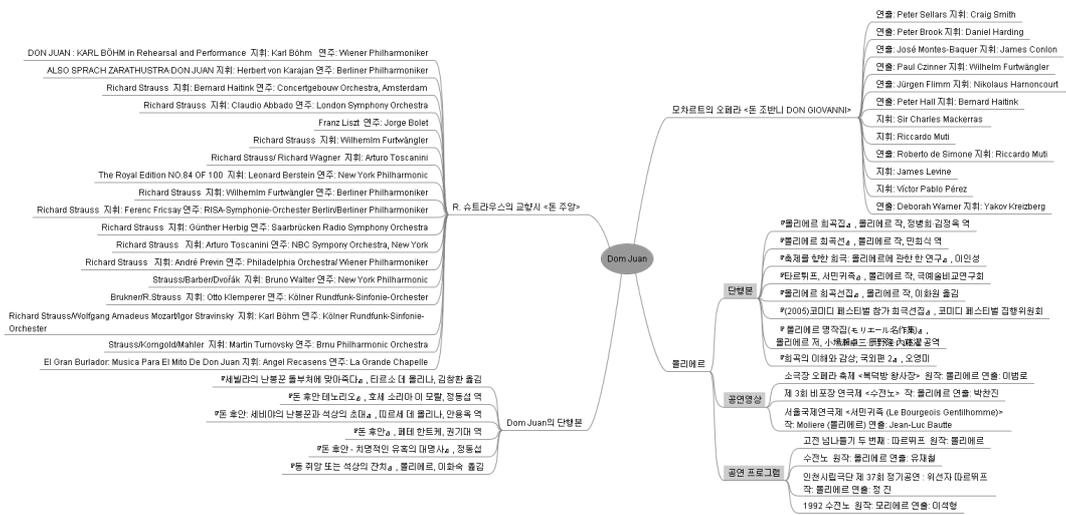
<그림 8>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동 주앙' 관련된 작품들을 모음



〈그림 9〉 ‘동 주앙’ 단행본들만 모음



〈그림 10〉 몰리에르 저작과 관련된 작품만 모음



〈그림 11〉 동 주앙의 작품들을 구조적으로 표현

과 관련된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FRBR 모형에서 보면 〈그림 11〉의 2번째 계층인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DON GIOVANNI>,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동 주앙’ 단행본, 몰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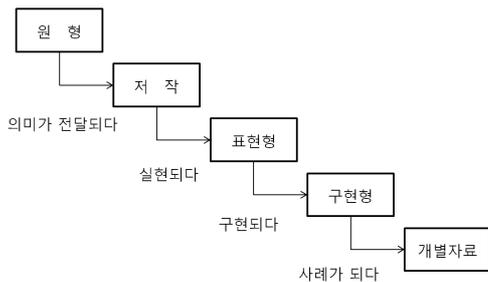
르 작품들은 각기 다른 저작으로 표현되고 있다. 국립예술평원 콘텐츠를 통해 FRBR 저작 개념만으로는 이용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집중기능이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저작의 의미를 연결하는 것은 저작보다 한 차원 높은 원형을 통해 연결될 수 있으며, '동주양'의 경우에는 '동주양' 자체가 원형이 되어서 상이한 저작을 연결하는 것이다.

4.2 원형 개체 정의, 속성, 관계 제안

원형 개체는 FRBR 모형을 확장시킨 개체이므로 FRBR에서 제시한 개체 정의, 속성, 관계를 가지고 있다.

원형은 저작보다 한 차원 높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저작을 의미적으로 연결하고 저작 단위의 기술을 실현하고자 한다. 원형은 FRBR 제1집단의 제일 상위 계층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12>는 원형이 추가된 FRBR 제1집단의 개체와 주요 관계를 제시하였다. 확장된 FRBR 제1집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형과 저작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는 '원형은 저작에 의해 의미가 전달되다'로 표현되었다.



<그림 12> 확장된 FRBR 제1집단의 개체와 주요 관계

원형 개체는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 사물, 사상, 사고, 생각, 아이디어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원형 개체를 확인하는 핵심 내용은

관련된 서지 개체들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원형은 많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을 가지는 것 또는 목록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원형의 논리속성은 다음과 같다.

- 원형 이름: 원형을 대표할 만한 이름을 사용함
- 관련 이름: 해당 원형과 관련된 이름들을 나열함
- 하위 원형: 관련된 하위 원형들을 표시함
- 원형 정보: 원형에 대한 내용적인 설명함
(예) 설화 및 신화 내용, 원형 작명에 대한 정보 등
- 참고정보원: 원형 이름이나 정보 및 관련 개념을 참고한 정보원을 기술함

4.3 분석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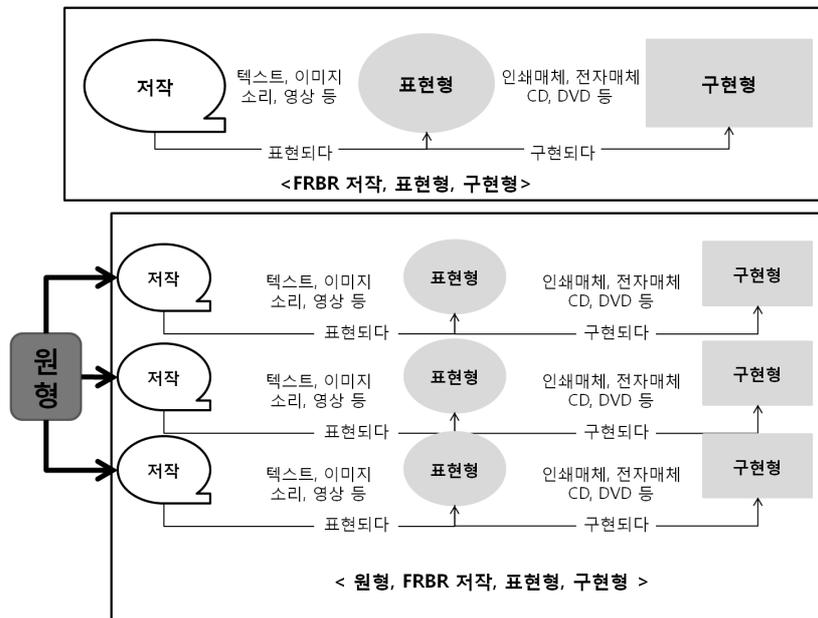
원형의 개념은 FRBR의 저작과 슈퍼레코드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표 2>는 슈퍼레코드, FRBR 저작, 원형을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을 집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슈퍼레코드는 특정 저자를 중심으로 관련 저작을 모았으며, FRBR 저작은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이며, 표현형과 구현형을 모으는 중심점이 되었다. 원형은 의미를 중심으로 했으며 그 의미는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림 13>의 위 부분은 저작을 중심으로 관련된 표현형과 구현형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부분은 원형을 중심으로 의미적으로 연결된 여러 저작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 슈퍼레코드, FRBR의 저작, 원형 비교

구분	기본 개념	기본 개념에 대한 집중 방식
슈퍼레코드	저자 중심	한 저자의 저작들을 연결
FRBR 저작	저작 중심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
원형	의미 중심	표현하고자 하는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 사물, 사상, 사고, 생각, 아이디어 같은 추상적인 개념



〈그림 13〉 FRBR 모형과 원형이 추가된 FRBR 모형 비교

확장된 개념인 원형을 실제 목록시스템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저작과 비슷한 문제로 원형 레코드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자체가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원형은 많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을 가지는 것 또는 목록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문화권마다 경계를 달리할 수 있다. 둘째, 이중의 목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원형의 개념을 통합하여 의미전달이 가능한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룰지, 의미

전달을 어떻게 하는지는 인간마다 다르게 표출된다. 목록시스템에서는 원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계 확장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저작은 목록의 집중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체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서지개체를 찾아주고 그와 관련된 개체들을 제공하는 키로

FRBR에서는 저작을 사용하였다. 저작은 언어 및 기호로 표현된 텍스트로 지적인 속성과 물리적인 속성을 전달하는 내용자체이며, 다양한 문헌으로 구현된다. 구현 문헌은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미지, 시각, 영상 등의 표현 방식과 인쇄본, 전자파일 등의 다양한 포맷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의 개념을 분석하여, 현재 목록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였다. FRBR 모형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목록시스템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첫째, 저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개체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구현형이라는 구체적인 산물이 확보되었을 때 FRBR 모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저작은 실제 목록의 집중기능을 지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목록 자체의 기능도 함께 저하된다.

저작집중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저작 해석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단점을 개선하였다. 저작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의 독창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저작의 창의성을 확인하는 경계를 '의미'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둘째, 서지개체에 대한 저록 작성시 서지 단위와 저작 단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셋째, FRBR 모형을 유지하면서 저작의 집중기능을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저작에 대한 전거 제어로 표현될 것이며, 저작의 상위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FRBR의 저작을 연결하는 개념은 인간의 사

고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이는 저작보다 한 차원 높은 계층이며, 본 연구에서는 '원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형' 적용가능성을 위해 FRBR 모형을 사용하는 목록시스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국립예술자료원 콘텐츠를 활용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 콘텐츠를 통해 FRBR 저작 개념만으로는 이용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집중기능이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작의 의미를 연결하는 것은 저작보다 한 차원 높은 원형을 통해 의미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원형 개체는 FRBR 모형을 확장시킨 개체이므로 FRBR에서 제시한 개체 정의, 속성, 관계를 가지고 있다. 원형 개체는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 사물, 사상, 사고, 생각, 아이디어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원형 개체를 확인하는 핵심 내용은 관련된 서지 개체들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원형은 많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을 가지는 것 또는 목록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원형의 논리속성은 원형 이름, 관련 이름, 하위 원형, 원형 정보, 참고정보원 등이며, 원형과 저작과의 관계는 '원형은 저작에 의해 의미가 전달되다'로 표현되었다.

결과적으로 목록의 집중기능을 향상시키는 원형의 개념은 의미를 중심으로,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원형 개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기반 연구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다양

한 자료유형을 기준으로 원형의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용량 도서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형의 개념을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 주양'이라는 특정 인물과 의미

적으로 연결된 서지개체들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동 주양'이라는 인물이 갖는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개념을 집중시키는 주제 색인 개발도 시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예술훈보원. [인용 2011.8.10].
 <<http://www.knaa.or.kr/>>.
- 국립중앙도서관. 2003.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정현. 2007. 한국어 서지레코드에 있어 FRBR 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95-314.
- 김태수. 2008. 『목록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미화. 2010. MARC 데이터의 RDA 저작 및 표현형 요소 분석을 통한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의 고려사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51-272.
- 이미화, 정연경. 2008. 저작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한 FRBR의 목록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65-82.
- 이성숙, 김태수. 2005. FRBR 모형의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196-220.
- 이혜원, 김태수. 2007. 음악 자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중심 ABC 온톨로지 확장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1): 273-300.
- 조재인. 2005. 표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한 FRBR 모형 분석 및 목록 체계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221-239.
- Benett, Rick, Brian F. Lavoie, and Edward T. O'Neill. 2003. "The Concept of a Work in WorldCat: an Application of FRBR."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27: 45-59.
- Fattahi, Rahmatollah. 1996. "Super Records: An Approach Towards the Description of Works Appearing in Various Manifestations." *Library Review*, 45(4): 19-29.
- Hickey, T. B. and Edward T. O'Neill. 2005. "FRBRizing OCLC's WorldCa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9(3/4): 239-251.
- Smiraglia, Richard P. 2001. *The Nature of "A Work": Implications for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Lanham, Md.: Scarecrow Press.
- _____. 2002. Smiraglia, R. (January 01, 2002).

- "Further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A Work': An Introduc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3(3/4): 1-11.
- Tillett, Barbara B. 2001. "Bibliographic Relationships." *Relationship in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Edited by C. A. Bean, and G. Rebecca. Kluwer Academic Publishers.
- _____. 2003. *What is FRBR? A Conceptual Model for the Bibliographic Universe*. 이재선역. FRBR이란 무엇인가? [cited 2011.6.9].
<http://www.loc.gov/catdir/cpso/WhatIsFRBR_Korean.pdf>.
- Weih, Jean and Lynne C. Howarth. 2008. "Uniform titles from AACR to RDA."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64(4): 362-384.